

4/10/22

설교 제목: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마가복음 11 장 1-11 절

- (막 11:1)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 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 (막 11:2)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 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 (막 11:3)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또는 즉시 돌려 보내리라 하라 하시니
- (막 11:4)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 (막 11:5)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 (막 11:6)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 (막 11:7)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겹옷을 그 위에 엮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절관주** 슥 9:9, 마 21:7
- (막 11:8)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겹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퍼며 **절관주** 요 12:14
- (막 11:9)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절관주** 시 118:26, 사 62:11
- (막 11:10)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절관주** 시 148:1
- (막 11:11)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 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절관주** 마 21:12

종려 주일입니다.

종려 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로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이날 많은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능력있는 말씀으로 가르치는 모습을 보고 자신들의 왕이 되어 자신들을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해주고 이스라엘을 다윗 왕 때와 같이 강대국으로 만들어 줄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종려 나무는 의와 아름다움 그리고 승리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직전 주일에 스가랴가 예언한 그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 가셨습니다.

(슥 9:9)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유월절은 오순절(칠칠절) 초막절(장막절)과 함께 유대 삼대 절기 중 하나로 하나님은 400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출애굽시켜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고 모세로 하여금 애굽 바로 왕을 찾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줄 것을 청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목이 굳은 바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길래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하나면서 하나님의 명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애굽에 나일 강 물이 피로 변하게 한 피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악성 종기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가축 돌림병 재앙, 흑암 재앙, 사람이나 가축의 첫 새끼를 죽인 장자 재앙 등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아홉 번째 재앙까지 마음을 바꾸지 않던 바로 왕이 열 번째 재앙을 맞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속히 떠나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내리신 이 열 번째 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열 번째 재앙을 내리기 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조치를 내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두루 다니며 사람과 가축의 모든 첫 세끼들을 죽일 때 문설주에 피가 발라진 집은 그냥 넘어가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조치를 따른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이 재앙을 당하지 않고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날을 죽음의 사자가 담을 넘어 갔다는 의미에서 유월절(Passover)이라고 부르며 절기로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성인 남자들은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자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 양을 잡아 대신 죽게 함으로 죄를 용서받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그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성인 남자인 예수님도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유대의 기득권층이었던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갈등이 극에 달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인기가 짙었습니다.

불치병이었던 문둥병 혈루병 등 병을 고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으며 말씀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가르치려들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대중에게 예수님의 인기가 치솟자 예수님에게 위협을 느끼기 시작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를 했습니다.

(요 11:45)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요 11:46)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 (요 11:47)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 (요 11:48)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 (요 11:49) 그 중의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 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 (요 11:50)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 (요 11:51)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 (요 11:52)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 (요 11:53)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 (요 11:54)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 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 (요 11:55)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 (요 11:56)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 (요 11:57)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

유월절 얼마 전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더욱 더 무성하게 번져 나갔고 예수님은 얼마 동안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은 모두들 예수님 이야기로 꽃피웠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이번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나타나실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한 동안 듣지 못한 사람들은 이번 유월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었던데다가 종교 지도자를 비롯한 유대 지도층 인사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작정하고 지명 수배령을 내려 놓은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타나셨습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기를 열망했습니다.  
왕이 되어 자신들을 부유하게 해 주고 이스라엘을 강하게 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다 달려와 겹옷을 벗어 길에 깔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엄청난 정치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분위기와 '호산나'를 외치는 백성들의 외침은 너무나도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전체를 뒤집을 수 있는 시기 적절한 상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말을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지 않고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말이 아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데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정복자로서의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분명히 보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언대로 섬기는 왕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당시 왕들은 전쟁에 출전할 때는 말을 타지만 평화 시에는 나귀를 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그가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직 아무도 타 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 (막 11:1)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 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 (막 11:2)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 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 (막 11:3)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또는 즉시 돌려 보내리라 하라 하시니
- (막 11:4)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 (막 11:5)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 (막 11:6)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 (막 11:7)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겹옷을 그 위에 엮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멍에 메지 아니한 온전하고 흠이 없는 짐승이어야 했습니다.

- (민 19:2)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메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네게로 끌어오게 하고
- (신 21:3)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메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하지만 나귀는 상징이었을 뿐입니다.

실제로 드러진 것은 나귀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가야 할 길과 때를 이미 아셨습니다.

유대 종교자들은 예수님을 지명수배하고 그를 보는 자는 신고하라는 영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담담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닷새 후 예수님은 로마 병정의 손에 잡혀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날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유월절 양이 되어 드러진 것입니다.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에 대한 예언이며 그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약의 유월절의 실체이며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시기도 하며 천국을 가르치셨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어 유월절 희생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인류에게 아니 우리에게 구속의 길을 열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그 고통의 십자가를 단 한 번의 변명도 없이 묵묵히 짊어지셨습니다.

그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무엇때문에?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남을 대신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류 구원의 뜻을 이루실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위해 죽기까지 충성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려 독생자 예수를 이땅에 보내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가슴을 저리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단 한 마디의 변명도 없이 묵묵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의 가슴을 멍멍하게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은 죽을 수 밖에 없던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입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헛되지 않도록 그분의 유언을 받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마 28:18)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 28: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 28: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